

미얀마문화원·현대불교신문사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덕분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고아원 방문, 후원금 전달 및 자원봉사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현대불교신문사는 미얀마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3월부터 미얀마 붓다자비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으로 미얀마문화원 소속 붓다자비봉사단은 지난 3개월간 불자님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현지에서 고아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미얀마 후원에 관심 있는 불자 및 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미얀마 양곤에 건설 진행 중인 종합기술대학 건립, 극빈지역 공동우물 파기, 극빈지역 고아원 및 학교, 불우가정, 신병의식(재가출가 의식) 등에 지원되며 미얀마문화원 봉사단의 정기적인 현지 방문 시 후원물품과 함께 전달된다.

후원: 예금주)국세불교지도자협회 농협 301-0016-0537-91 (02)733-5670 이나은 기자



① 2008년 미얀마에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로 부모를 잃은 3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아우디가 고아원에 머물고 있다.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붓다자비봉사단 20여명은 6월 14~19일 미얀마 밍글라동시에 위치한 '아유디가' 고아원(원장 우 에리아 완파 스님, 아우디가 사원 주지)를 방문했다.

봉사단은 우 에리아 완파 스님에게 미화 5000달러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뒀 10박스, 학습품 5박스, 과자 6박스 등을 지원했다.

봉사단원들은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 본 후 위생적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해 목욕, 청소, 소독 등 봉사활동을 했다.

현재 아우디가 사원은 사찰 한 칸에 아이들의 방이 있는 건물로 증축하고 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500여 명의 아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다. 붓다자비봉사단이 전달한 지원금 미화 5000달러는 건물 증축 및 고아원 운영비용에 보태진다.

우 에리아 완파 스님은 "매번 보내주는 학습품과 옷, 후원금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같다. 하지만 몇 년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재정난으로 정들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며 "그런데 한국 불자님들과 인연이 돼 많은 힘을 얻고 있다. 내 마음도 더욱 강해져 용기를 얻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번 증축에 보탬이 돼 500명의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에리아 완파 스님은 10세에 출가해 20세에 뽀마벤에 아우디가 사원을 세웠다. 1976년부터 가난한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스님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아유디가 고아원은?

불교국가답게 5만여 사찰이 있는 미얀마에는 수많은 사찰 중 눈에 띄는 사찰이 있다.

5000명 고아들을 위해 사찰을 개조해 고아원을 만든 아우디가 고아원(원장 우 에리아 완파 스님)이다. 여느 사찰과 다르지 않았던 아우디가 고아원은 현재 수행과 봉사를 함께하는 이 지역 최대의 고아원이다. 고아원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없는 운영자인 우 에리아 완파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2008년 5월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7개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3만여 명의 사망자와 5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극빈지역인 밍글라동시는 이때의 피해로 부모를 잃은 수 많은 어린이들이 발생했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우 에리아 완파' 스님은 2년 전 뽀마벤 마을에 있던 사찰을 개조해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고아원은 2년새 50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이르렀으나 어려움이 많다.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고아원은 예산 전체를 신도들의 후원으로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미얀마의 수도가 네빠도로 바뀌면서 아우디가 고아원을 후원하던 신도들이 밍글라동시를 떠나 후원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아원 운영이 힘에 부치게 되자 스님은 수 천명의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주변 사찰과 고아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른 곳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유디가 고아원은 3800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다. 교실 5개에 선생님은 8명, 교사 1명당 47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셈이다. 학생 수가 넘쳐나다보니 교사들은 교실 동서남북 사방에 칠판을 걸고 중구난방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 중 7명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미얀마 공무원의 평균급여는 15만원 정도이다) 고아원 사정상 선생님들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몇몇 스님들과 자원봉사자인 메두 교사(28)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메두 선생님은 중학교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들어왔다. 아우디가에서 성장해 도시에서 대학까지 마친 후 다시 아우디가로 돌아온 그는 무료교육 봉사로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메두 교사는 "매일같이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공부에 부족하지만 한국 불자들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②

② 불자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민간준지 우물 ③ 아우디가 고아원은 교실이 5개 밖에 되지 않아 사방으로 칠판을 놓고 수업을 하고 있다. ④ 아우디가 고아원 원장 우 에리아 완파 스님(70) ⑤ 고아원에서 교육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메두 교사(28)



③



④

⑤

1회성 생색내기 봉사 단체로 오해받으며... 지속적인 지원 다짐해

아유디가 고아원에 도착한 봉사단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일행들과 고아원과 동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현재 3500여명의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숙소는 비좁고 습하고 어두웠다. 너무도 비참한 환경이었다. 성인은 누울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이 이곳 아이들의 잠자리이며 생활공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 미얀마는 쓰레기에 대한 정부의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이던 비닐봉투이던 그냥 땅굴면서 썩어간다. 썩어 고인 물들은 다시 웅덩이를 만들고 그 물들은 다시 강이나 저수지 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물 한 바가지로 샤워를 한다. 그래서 머리머 온 몸통에는 피부병이 심각하다.

아이들 공부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려보았다. 이런! 교실 동서남북으로 칠판이 걸려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사방으로 누워서 공부를 하

고 있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교실 부족에 선생님 부족 탓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고 한다. 서로를 공부해야 하는 수준들이 다르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두 분이다. 두 분이 칠판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며칠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모기와 파리와 개미떼에 항복하고 호텔로 옮겨야 하나 싶다. 아이들이 걱정됐다. 아이들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웃어 넘긴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짧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봉사활동 마치고 돌아가자" 하고 맘을 다잡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

일단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의식수준이 다르다보니 소독을 함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키지 않나보다. 그저 굶주린 배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이해를 했다. 다행이다.

이곳 고아원은 아이들이 많다보니 주지스님께서 항상 기니 걱정을 하신다.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더 달라고 조르지만 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아이들과 며칠간 함께 생활하니 이제는 아이들과 주변 어른들도 경계심을 풀고 대해주신다.

1회성 생색내기 봉사 단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아픔으로 각인됐다.

붓다자비봉사단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는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5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봉사는 현지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진정 그들을 이해하고 돌아왔다.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최정연(42·붓다자비봉사단 회장)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봉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북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흥왕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몰라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를 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사관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도,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발원, 목욕탕, 다방, 장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사주,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부처님 제1의 비방부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입 선물로도 품격!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가운데: 대법고, 천도법고, 태징, 목어, 수작업 개금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行孝 人 喜 伏魔 寶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특색위패
특단위패

대표전화: 02-966-9650
팩스: 02-921-9650
홈페이지: www.dya.xo.st
(주) 대양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